

#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 또 논란 ‘특혜 의혹’

한승우 의원·시민단체 기자회견  
“감정평가편법·기여금 축소 의혹  
전주시민 손해 4천억원 넘어”  
한 의원 “감사원 감사 청구 예정”  
전주시 “법과 원칙 따라 처리”

시공사도 정해지기 전에 승인이 난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또 다시 논란과 격랑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다.

승인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정의당 한승우 전주시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주)자광이 추진하는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편법과 특혜가 반복됐다”고 전제한 뒤 “그 결과 시민이 입을 손해는 4천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주시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 환수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편법으로 진행하거나 이를 묵인해 3천억이 넘는 공공기여금을 축소했고, 사업자가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공공기여금 가운데 1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교통개선대책 사업비로 사용키로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교통영향평

가 지침 등에는 교통개선비를 문제를 유발한 사업자가 부담토록 규정하는데, 전주시가 이를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배임이라는 논리다.

2천528억원 중 약 1천30억원을 교통개선대책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한 점을 강조했다.

한 의원 등은 이달중으로 시민 300명 이상 서명을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



한승우 시의원

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전문 감정평가사가 수행했고,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분의 100%를 공공기여로 반영했다”며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자인 (주)자광은 6조2천억 원을 들여 도청 인근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20만㎡에 2030년까지 관광타워와 상업시설,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을 지을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 수년간 캠틱 예산 어디다 썼나 전주 드론축구카르텔 ‘예산농단’

조국당 전북도당 7일 성명 ‘직격  
시민 헬세로 ‘그들만의 리그’ 키워  
산업도 스포츠도 없는 ‘유령사업’  
시 ‘감사권한 없다’ 의혹 방패막이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7일 성명을 통해 “수백억의 시민 헬세가 투입된 전주 드론축구 월드컵은 구경 온 관광객은 없고 선수의 시비 지원으로 ‘거저 모셔 온’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다”며 공허하고 충격적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또 “이는 예견된 참사다. 이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지자체(전주시)-협회(대한드론축구협회)-기술원(캠틱)-사업자’로 이어지는 공고한 특권 카르텔이 시민의 세금을 사유화한 예산 농단이다”고 비난했다.

조국당은 “이 카르텔의 정점에는 ‘캠틱’이 있다. 캠틱은 전주시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드론축구 사업을 사실상 독점했다”며 “드론축구 사업에 전주시는 1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고 본래 농업용 드론을 개발하다가 뛰어든 캠틱에 전주시는 시 소유인 ‘첨단벤처산업단지’ 운영 위탁을 20년 가까이 독점하며 76억 원이 넘는 시 예산을 받아 갖고 공개입찰로 전환된 후에도 3차례 연속 선정된 것이 과연 공정한 경쟁의 결과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것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협회를 중심으로 드론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캠틱’ 뿐이지만 캠틱 구성원은 거의 변동 없이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했을 뿐이다”고 전제한 뒤 “이런 와중에 캠틱 내부적으로는 되려 기존 직원들이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조국당은 “200억 원이 투입된 신설 경기장은 활용도가 극히 낮아 텅 비어 있고 이는 애초에 행사를 주관해야 할 협회가 경기장 설립으로 인한 수요와 활용에도 무관심하다는 증거다”며 “더 심각한 것은 산업통상부 인가 단체라는 이유로 ‘산업 육성’ 예산은 받아 갔지만, 정작 스포츠로 성장하기 위한 문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7일 성명을 통해 “전주시 드론축구 월드컵 ‘지자체-협회-기술원 사업자’로 이어지는 특권 카르텔이 시민 세금을 사유화했다”고 비난했다.

<사진=전주시>

화체육관광부 인가와 대한체육회의가 맹으로 프로 리그를 결성하려는 노력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또 “두 전·현직 시장에 걸쳐 수백억을 쏟아부어도 ‘산업’도, ‘스포츠’도 아닌 말발이 없는 유령 사업만 남았다. 이는 ‘스포츠’는 명분일 뿐, ‘산업 R&D 예산’을 독점하기 위한 구조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바리 의혹이 터지자, 이 카르텔은 ‘꼬리 자르기’로 대응했고 협회 사무국장은 해임됐지만, 협회장이자 캠틱 원장은 대한드론축구협회 회장직만 사임한 채 국제드론축구연맹 회장직을 유지했고 당시 담당 공무원은 승진까지 했다”며 “지난해 시의회가 회계 감사를 요구했지만, 캠틱은 이를 거절했고 전주시는 ‘직접 감사의 권한이 없다’며 적극적인 협조로 위장한 ‘방패막이’를 자처했다는 논리다.

120억 원을 지원한 기관에 지속적인 대처도 하지 않으며 ‘감사 권한이 없다’는 말을 어느 시민이 납득하는가라며 반문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 전라북도당은 “이 사태를 ‘특권과 반칙’이 ‘청년의 기회’를 박탈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전주시의회는 120억 예산과 200억 경기장 사업 전반에 대해 전주시를 대상으로 한 즉각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또 “수사기관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중단하고, 비자금의 사용처(해외 골프 및 성 접대 의혹)는 물론, 몸통인 캠틱 지도부와 승진 공무원을 포함한 전주시 지휘부의 유착 의혹까지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의회 ‘한 해 마무리’ 정례회 36일간 돌입

오늘 제 423회 정례회 개최  
행정사무감사·2026 예산안 심사  
도민제안 창구 운영 13진 반영  
문 의장 “내실 있는 심사 추진할 것”

전북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한다.

2025년도 마지막인 이번 회기는 1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6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결산 추경 및 새해 본예산안을 심사한다.

회기 첫날인 10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 사



문승우 의장

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도민의 의견을 제안·제보받아 활용하고자, 지난

한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며, 둘째날인 11일부터 20일까지

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이후 29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도민제안 창구를 운영, 13건의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안을 접수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도민 제안을 검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이후 29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

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행정사무감사는 서류 검토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관점에서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해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관련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업무 연찬회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장정철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김제와 함께  
사랑을 같이  
기부로 나눔

내 고향 김제를 살리는 아주 특별한 기부!

고향사랑기부로  
김제를 응원해주세요!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가까운 농협에서 가능합니다.

김제시

# 전북도, 겨울 한파·폭설 축산재해 대응체계 가동

내년 3월까지 대책상황실 운영  
피해예방 예산 160억 투입  
309개 농가 우선 사전점검 완료  
가축보험·시설보강 지원 강화

전북도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절기 재해예방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도는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축산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기상 상황 모니터링, 기술지원, 긴급 대응과 복구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상황실은 기상특보 발령시 즉시 비상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시군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피해 발생 시 현장 확인과 피해조사, 손해평가, 복구 계획 수립 등을 단계적으로 신속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특히 재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대설과 한파에 취약한 309개 농가를 우선 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축사 지붕·지시대 안전성, 보온과 단열 상태, 전기·난방 설비 이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 폭설 피해 사례가 있는 지역은 점검 대상을 한층 넓혀 재발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노후시설이나 위험요인은 시군과 연계해

즉각 보수 조치하도록 하고, 농가 스스로 예방수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 안내도 병행 중이다.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도 강화된다. 도는 이번 겨울 축산재해 예방에 총 16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이 중 약 140억 원은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편성해 자연재해,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 보장을 확대한다. 또한 축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과열 감지장치 설치 등 '축산화재안전 시스템 개선사업'에 5억 원, 지붕 보강과 보온재 보완, 제설 자재 확보 등 시설 보강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약 15억 원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는 한파시 급수시설 동파 방지, 난방기 과열 차단, 누전차단기 점검, 축사 내 먼지 제거 및 배선 정리, 제설 장비 확보 등 농가가 즉시 적용 가능한 예방 요령을 문자, SNS, 안내 리플릿 등을 통해 지속 전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 축산산업국장은 "동절기 축산재해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커지고 복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대비가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며, "축산 농가에서는 기상특보 발령 시 축사 점검과 전기·난방기 관리 등 안전 수칙을 꼭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 이재명대통령 지지율 APEC 성과에 6%p 급등

갤럽 조사 긍정평가 63%  
민주당 40%vs국민의힘 26%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급등했다. 지난 7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4~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6%포인트 급등한 63%로 나왔다. 부정평가는 4%포인트 떨어진 29%,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민주당 지지층(96%), 성향 진보층(88%),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67%)과 보수층(56%)에서 두드러졌다. 중도층은 72%가 긍정적, 21%가 부정적으로 봤다. 연령별로 40~50대에서 긍정률 70%대, 30대와 60대에서 60%대, 20대와 70대 이상에서 약 50%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30%), '경제/민생'(13%), 'APEC 성과',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직무 능력/유능함', '서민 정책/복지'(이상 4%),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주가 상승'(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40%,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각각 4%, 진보당 1%, 이의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 24%다. 8월 중순 이후 여당 지지도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중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7%가 더 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9%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16%,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2%다.

지역별로 서울의 경우 민주당 47%, 국민의힘 18%로 격차가 두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이 대통령 지지율 급등은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었다.

APEC 정상회의가 국익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매우 도움됐다' 49%, '약간 도움됐다' 25% 등 도합 74%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APEC 정상회의가 국익에 도움됐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745명, 자유응답) '대미 관세 협상 성과'(18%), '국가 홍보/국제 높이'(12%), '핵추진 잠수함 승인'(9%), '경제에 도움', '각국 정상과 만남'(이상 7%), '국가 간 교류', '엔비디아 AI 협력/GPU 확보'(이상 6%) 등을 답했다.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7%,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6%로 부정평가는 13%에 그쳤고,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미 관세협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했다' 55%, '잘못했다' 26%였으며 의견 유보는 18%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목기자

## 이원택 의원 “새만금 K-푸드 허브, 정부가 속도 내야”

7일 농해수위 예산안 전체회의서  
전북 현안·농어민 예산 반영 촉구  
“국가정원 등 적기 추진해야” 강조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진행된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농어민의 삶을 좌우할 주요 농업 현안과 지역 핵심사업의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 현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전북을 K-푸드 중심지 만들겠다고 공약한 만큼 최근 연구용역이 완료된 새만금 K-푸드수출허브단지 구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주체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원택 의원

을 ‘한국식품산업진흥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수출지원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를 통해 조직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

주기업이 요구하는 수출관련 물류체계 정비와 인증방식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만금수목원과 새만금 국가정원의 신속한 추진, 축산농가의 사료구입비 절감을 위한 수입대체 사료작물 종자생산단지 조성 등 새만금 일원에서 추진 중인 주요 국가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콩 수매예산 2만 톤 추가 반영, 전북지역 콩 융복합단지 추진, 심화되는 농업재해 대응을 위한 배수개선사업의 신속 추진 및 신규지구 지정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새만금산단 입주기업의 2026년 본격 가동으로 증가할 물동량 처리를 위한 배후부지 매립 및 항로 안전 확보를 위한 ‘새만금항 신항항로조설 사업’의 국비 반영을 강조했다.

또한, 연간 16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격포 여객선터미널의 노후시설 개선 및 신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생산량 2위에 김 산업 지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농업경영비 급등과 소득감소에 따라 농가의 생계와 농업

기반이 더욱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무기질비료 지원, 친환경농업의 2배 확대를 위한 직불금 현실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재개, 4H 및 생활개선회 등 지원 복원 등 현재 정부 예산안에서 미흡하게 반영된 농업 현안들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의 적기 추진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예산심의에서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먹거리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목기자

## 전북도, 202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모집

최장 3년간 월 110만원 지원  
정착지원금·농지·용자 등 패키지

전북도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접수는 이달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모집은 전국 2,000명을 선발하는 1차 모집으로, ▲만 18세 이상~40세 미만(1985~2008년생)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신

청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농지은행 임대 우선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우대보증 등 다양한 연계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전북도는 올해 도내 41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해 정착을 돕고 있으며, 내년에도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를 거쳐 2026년 1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신중 도 농생명정책과장은 “청년농업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마련하는 것이 미래 농업 경쟁력의 핵



전북도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한 '202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진=전북농업기술원>

심”이라며 “전북에서 새로운 농업의 길을 열어가길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전북도, 하수처리인플루엔자 조기 검출

전년비 5주 빨라...예방접종 독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42주차(10월 12~18일) 이후 도내 하수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며 개인 위생관리와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전주, 군산, 익산, 임실 등 4개 시·군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매주 하수 시료를 채취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44종의 병원체를 분석하는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사업'을 수행해 지역사회 내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42주차부터 검출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지난해 첫 검출 시점인 47주차(11월 중순)

보다 약 5주 빠르다. 또한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에서도 44주차(10월 27일 주간) 기준 인플루엔자 양성률이 16.67%로, 전년 같은 기간 1% 미만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예방접종이 중증화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했다.

전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는 실제 환자 발생 이전의 유행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감시체계”라며, “질병관리청과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 대응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수칙

운전자

1. 항상 서행하고 주변을 살피며 운전하세요
2. 불법 주정차는 하지마세요
3.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추세요

어린이

1. 무단횡단은 하지 말아요
2. 등하굣길에 친구와 장난치지 않아요
3. 초록불에 횡단보도로 천천히 건너요



# 전주시 ‘2025년 공공비축미’ 총 2151톤 매입

## 지난해 매입량比 319톤 감소

전주시는 2025년 공공비축미 △건조포대배 1585톤 △산물배 213톤 △가루쌀 353톤 매입 계획을 지난 7일 밝혔다. 시의 2025년 공공비축미 매입은 지난해 매입량보다 319톤 감소한 총 2151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축미 감소 이유로 시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시장격리곡 매입물량이 없어 작년 87% 수준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동별 매입량 및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총 4개 권역별로 나눠 매입에 들어설 계획이다. 매입된 미곡은 전주시 정부양곡관리창고(4개소)에 분산되어 비축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년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은 일반벼 2품종 ‘신동진’, ‘참동진’, 가루쌀 1품종 ‘바로미2’로 확인됐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된다. 시는 농업인에게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 40kg 조곡 기준당 4만원의 중간

정산금을 지급한 후 오는 12월말 최종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여기서, 농업인은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할 경우 향후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는 매입 품종을 반드시 확인해 공공비축미 품종 외 다른 품종 벼가 출하되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 한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중

##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주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보증료 지원신청은 올 연말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서울보증보험(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주시 소재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아울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연 소득



기준 △청년(만 19~39세)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이다. 단, 법인 임차인·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외국인,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확인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plus.gov.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 안골·서원·꽃밭정이노인복지관 ‘작은 나눔, 큰 행복’ 바자회 열어

## 수익금 전액 저소득 노인 지원,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

전주지역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인복지관 바자회가 연이어지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안골노인복지관(관장 박수진)과 서원노인복지관(관장 석초스님), 꽃밭정이노인복지관(관장 전석복) 등 3개 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나눔, 큰 행복 바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안골노인복지관은 지난 6일, 서원노인복지관은 6일과 7일,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은 7일 각각 바자회를 열었다. 이번 노인복지관 바자회에서는 곡류와 건어물, 젓갈류, 주전부리 등 다양한 물



품이 판매됐으며, 따뜻한 곰탕을 비롯한 먹거리 부스가 운영됐다. 또 이벤트와 체험도 함께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됐다.

노인복지관들은 행사 기간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 노인 지원과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전주시 노인복지관들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는 등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복지공동체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석초스님(서원노인복지관장)은 “작은 나눔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드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 복지 향상에 더불어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은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주민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지역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바자회를 준비해 주신 복지관 관계자분들과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전주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는 지난 7일 경기도 오산시와 충북 보령시, 충북 증평군 등 3개 지자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주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 전주시 통합돌봄 사업 노하우 전국에 확산

### “전주에서 노하우 배웠어요”

전주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노하우를 배우려는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전주시정연구원 회의실에서 경기도 오산시와 충남 보령시, 충북 증평군 등 3개 지자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주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전옥희 오산시 희망복지과장과 오미경 보령시 경로복지 팀장, 조미정 증평군 보건소장, 김경희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교수 등 약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참석자들과 전주시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정보 및 각 분야별 사업 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전주시 특색사업인 △건강의료안정망 △75세 이상 노인

전수조사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한 통합돌봄서포터즈 등에 대한 세부 설명 및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 연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돌봄 고위험군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와 요양, 돌봄, 주거, 일상생활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오는 2026년 3월부터는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으로, 돌봄 대상은 65세 이상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등이다.

/정혜민 기자

## 전북환경청 ‘토양안심주유소’ 운영실태 강력점검

### 적정운영 및 제도준수 여부

전북지방환경청 김호은 청장은 관내 토양안심주유소 대상 운영실태 점검을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김 청장의 실태여부 점검은 지정·관리 중인 토양안심주유소 대상으로 한 토양오염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제도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따른 것이다. 토양안심주유소는 이중벽탱크·누유경보장치 등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권장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주유소를 말한다.

24년말 기준 전국 지정·관리 업체는 1032개소이며 전북지역에는 37개소다. 토양안심주유소에 지정되면 5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올해는 총 7개소 대상으로 유류저장탱크·주유기 연결부 등 누유여부·누유경보장치정장작동·파손여부·자체정기점검 실시 여부(1회/월) 등의 집중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점검결과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 자체 개선을 유도하지만,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시설 변경 및 고장 방지 시 등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김영태 기자

# 전북대병원 ‘전국 의료인 대상’ 전문 학술대회 열어

## 대한췌장담도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실습 교육 진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소화기내과 내시경실이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 주관한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전국 주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소속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대한췌장담도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췌장·담도질환을 진료하는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 학술대회다. 최신 진단과 임상 경험을 공유하며 진료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교류의 장이다. 전북대병원 내시경실의 ERCP(내시경 역행담췌관조영술)팀은 이번 학술대회의 교육 세션에서 ERCP 관련 기술 기구



전북대학교병원은 소화기내과 내시경실이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 주관한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전국 주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소속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의 올바른 사용법, 환자 안전 관리, 시술 전·후 간호 과정 등 실제 임상에서 필요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ERCP는 십이지장 내시경을 이용해 담

관과 췌관 안에 조영제를 주입하고 X선 영상으로 담도와 췌관의 상태를 관찰하는 검사 및 치료 시술이다. 전북대병원은 매년 학회 및 전문 학술 행사에 적극 참여해 의료진과 간호사들의 임상 역량 강화와 지식 공유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내시경실 전문성과 교육 중심 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김성훈 소화기내과장은 “다양한 학술 활동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임상 역량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전북대병원은 의료인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료진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전문적인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예수병원 장애인화 산부인과 ‘제3회 심포지엄’ 개최

전국 최초 개원한 예수병원 장애인화 산부인과가 제3회 심포지엄을 열었다. 지난 7일 예수병원 신충식 병원장은 장애인화 산부인과가 제3회 심포지엄 열고 학술적 논의를 이었다고 밝혔다. 예수병원 장애인화 의료지원센터 개회식은 홍상기 센터장이 맡았다. 홍 센터장은 “장애 여성의 안전하고 존중받는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의료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예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경환 과장 ‘주산기 우울증’ 주제 강연

이 뒤따라 진행했다. 그는 △임신 △출산 시기의 정신적 어려움 △조기 발견의 중요성 △치료 접근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하며 “산모 정신건강 지원 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예수병원 장애인화 산부인과는 2022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열어 장애인화 여성과 가족이 차별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왔다. 예수병원은 매년 심포지엄을 통해 관련 연구 교류를 확대하며 장애인화 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을 계속한다.

/정소민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표지 부착

전주덕진소방서 권기현 서장은 지난 7일 ‘2025년 신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표지 부착을 진행했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부착은 소방안전관리와 사고예방 활동에서 모범을 본 업소를 선정하는 제도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을 위해 ‘현장 확인 및 철저한 심사’를 거쳐 안전수준이 높다고 인정된 사업

장을 찾아 인증해오고 있다. 이날 덕진소방서는 스타벅스 전북대병원DT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표지’ 부착과 함께 영업주 도지사 표창 수여식까지 함께 마련했다. 스타벅스 전북대병원DT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 11월 9일부터 2027년 11월 8일까지 2년이다.

/김영태 기자



# 바이오진흥원, 푸드테크 산업 기술지원 강화

##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중심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집중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전북자치도와 함께 푸드테크 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해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바이오진흥원은 기업방문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산업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오고 있다.

더불어 기술적 애로사항과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기업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

아울러 기업과 연계한 대체식품 개발 등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진흥원은 '식물성 소재 이용한 오징어 젤라틴 개발'을 발굴해 오징어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소재를 개발하며 기능성 저염·저칼로리 오징어 젤라틴 기술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30~40대 젊은 소비층·어린이도 즐길 수 있는 젤라틴제품을 선보여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또 고구마말랭이 제조 전문기업 기술 해결을 위해 '고구마 엽사이클 소재를 활용한 향산화 증류주 생산기술 개발' 과제를 함께 기획·제안하며 성공의 성과를 거뒀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고구마말랭이 생산 과정에서 폐기되는 껍질과 겉속살 등 40% 이상 부산물을 엽사이클 소재로 활용해 향산화 기능을 갖춘 증류주로 고부가가치화 하는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지속가능한 식품 자원 활용과 지역 농산물 산업적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외 바이오진흥원은 식품기반 식품포럼, 커스텀푸드 제조 혁신 포럼, 월드푸드테크 컨퍼런스, 전북-네덜란드 공동포럼 등을 개최하며 지속가능한 식품 기술 및 대체 단백질, 스마트 푸드 제조 등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전북자치도와 함께 푸드테크 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해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 최신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공유하고 산·학·연·관 협력 방안을 활발히 논의해오고 있다.

이은미 원장은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지역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내·외 푸드테크 네트워크 강화 및 글로벌 협력 기반을 확대해 전북이 대한민국 푸드테크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전북농협 겨울철 안전점검 '집중'

### 이정환 총괄본부장 부안관내 농업 취약지역 찾아

전북농협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겨울철 한파·폭설에 의한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 부안군 농업인을 찾았다.

이 총괄본부장은 지난 6일 부안군 내 주요 시설하우스 및 농업 취약지역을 찾아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취약지역 현장을 찾은 이 총괄본부장은 △비닐하우스 보강지주 설치여부 △결속끈 상태 확인 △전기시설 점검 △재해 대비 예비자재 보유 현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여기에 현장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재해보험 가입 중

요성과 농작물 병해 예방 관리 요령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안내했다.

그동안 전북농협은 관내 92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재해 사전대비 현장점검실시를 지도해 왔다.

나아가 영동재해대책상황실 24시간 가동하며 신속한 피해파악과 복구 지원에도 모든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전북농협은 사전 관리 및 점검으로 피해 최소화 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 신고 및 복구 지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상의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 전시회 참관

## 건축·자재 산업 최신 트렌드 비즈니스 파악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유일 건축 설계·자재 중심 B2B·B2G 전시회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KAFF 2025)에 참관단을 지난 6일 파견했다.

이날 전주상공회의소 회원기업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참관은 전주상공회의소가 회원기업의 최신산업에 대한 동향 파악과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건축·자재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비즈니스 기회를 접했다.

/정소민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주관으로 다양한 자재 부스, 설계기술 세미나, B2G 상담관 등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건축·인테리어·IT·건설기술·기계설비·정책홍보·작품전시 등이 다뤄졌다.

김정태 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수도권 중심의 전시·비즈니스 플랫폼을 직접 접하고, 회사사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최신산업 트렌드 공유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매년 국내 유명 전시회·박람회를 참관하며 주요 산업별 전시회 참관과 비즈니스 교류 프로그램을 정례화해 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와 기술 경쟁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상공회의소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유일 건축 설계·자재 중심 B2B·B2G 전시회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 참관단을 지난 6일 파견했다.

# aT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실적 1조 원' 달성

## 산지 팜투어 동행 등 MD 지원 신뢰도 확보 주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올해 역대 최대 거래실적 1조 원을 달성했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 단위의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세계 최초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해 목표 5천억원 대비 35% 초과한 6737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목표 1조원을 조기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aT는 올해 거래목표 1조원 달성을 위해 △부류별 MD(상품기획자)를 통한

거래 알선 △맞춤형 컨설팅 및 팜투어를 통한 산지 직거래 활성화 △생산자에게 맞춤형 특화상품 개발 스카카오톡, 롯데온 등과의 협력으로 영향력 있는 구매자 유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거래 참여 업체 수는 작년 대비 3804개소에서 5272개소로 확대(39% ↑)됐으며 일평균 거래 금액도 18억 4천만원에서 상승한 32억 6천만원(77% ↑)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성장의 밑바탕에는 온라인도매시장 MD의 밀착 지원이 함께했다.

담당MD는 생소할 수 있는 온라인도매시장의 비대면 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산지 팜투어 동행, 지원사업 1:1 설명 등 거래를 확대하는 데 주력

하고 있다.

경기도 소재 온라인셀러 비케이물산은 "온라인도매시장 MD와 함께 산지 팜투어에 참여한 이후, 발품 팔 필요 없이 전국 산지의 우수 상품을 손쉽게 소싱할 수 있어 매우 만족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T는 올해의 1조 원 달성 실적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거래금액 7조 원 달성을 목표로 나아갈 계획이다.

지난 9월에는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유통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래 품목 확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청과, 수산 등 79개 신규 품목을 추가했다.

/정혜민 기자

향후에는 거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용자의 거래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거래중개인과 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온라인도매시장의 전문성과 상품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실적 1조 원 조기 달성은 다양한 거래주체가 직접 거래에 참여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유통 효율을 높인 혁신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농진청, 감귤 부산물 자원 순환 기술 개발

## 악취 저감·해충 유인제 등 친환경자재로 재탄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순창군 순창읍 소재 순창군다함께돌봄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12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난 '19년 개소한 순창군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25명을 센터에서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개소 초기부터 사용하고 있는 노후화된 물품들의 교체를 통한 환경개선이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철제로 돼 있어 그동안 안전문제가 우려됐던 아동들의 개인

사물함과 오래된 학습지도 및 프로그램 진행용 컴퓨터를 교체했다.

또 학습용 의자, 독서용 빈백소파, 불박이 수납장 등을 지원해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했다.

오픈식에는 순창군 조광희 부군수, 순창군의회 김정숙 행정복지위원장, 순창군가족센터 문정현 센터장, 순창군다함께돌봄센터 배은숙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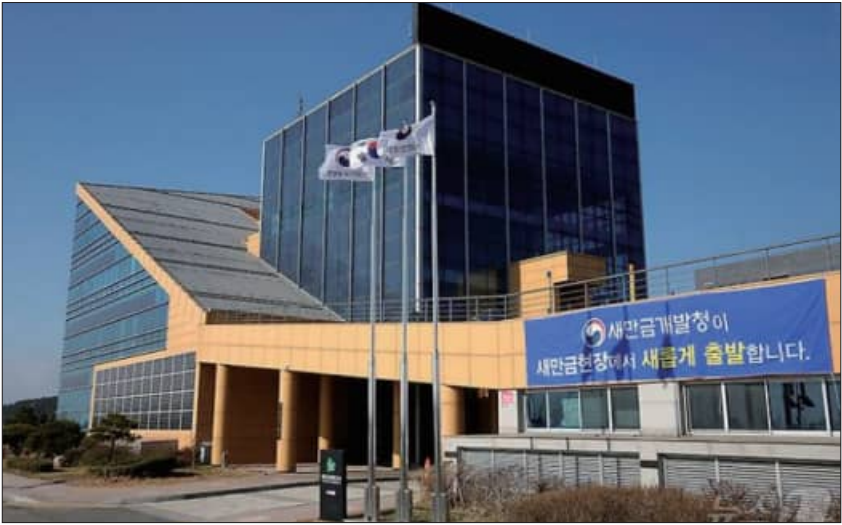
전상의 부행장은 "지역사회 회원의 일환으로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중 실시하고 있는 공부방 지원 사업을 통해 아동들이 마음껏 배우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순창군 순창읍 소재 순창군다함께돌봄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12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정혜민 기자



## 세만금산단 입주기업 태양광 설비 준공인가

### 테이팩스·주왕산업 운영

세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세만금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인 ㈜테이팩스와 ㈜주왕산업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지난 7일 개발행위 준공인가했다.

개발행위 준공이 승인됨에 따라 두 기업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테이팩스는 182.4kW, ㈜주왕산업은 709.9kW 규모로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주왕산업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생산·납품하는 업체로 2024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태양광 발전설비 부문)에

지정된 유망기업으로, 이번에 설치한 상업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잉여전력을 판매할 계획이다.

㈜테이팩스는 이차전지와 반도체 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수테이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RE100 실현을 위해 자가소비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했다.

세만금개발청 홍지광 산업진흥과장은 "앞으로 세만금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RE100을 실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발행위 인허가 등 관련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연장 전시에 총 3만여 명 방문

‘제22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연장 전시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대표 가을 축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익산시는 지난 3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된 국화축제 연장 전시에 총 3만여 명이 방문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76만여 명이 다녀간 공식 축제에 이어 가을의 정취를 더 많은 방문객에게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백제문화의 화려함을 재현한 백제금종 한지등과 높이 8m 대형 불화 조형물, 천사의 계단 빛조형물 등 다채로운 전시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신흥공원 보행교 개통으로 축제장이 중앙체육공원에서 신흥공원까지 확장되면서 규모와 품격이 한층 높아졌다.

신흥공원은 수변을 따라 조성된 물길정원과 야간 산책로, 유아숲 체험원 등이 조성돼 자연 친화적인 체험과 휴식공간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모았다.

익산시 관계자는 “올해 국화축제가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분양된 화분국화가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에서 아름답게 피어나 익산의 가을을 다시 물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10일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경영비 부담 ↓

정읍시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받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해 토양환경을 보전하며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했거나 등록 예정인 농업인으로, 이 자격은 유기질비료가 실제 공급되는 시기까지 유효하게 유지돼야 한다.

신청은 본인의 농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만약 여러 시·군에 농지가 분산돼 있다면, 각각의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개별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 비료는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퇴비) 두 종류다. 유기질비료는 20kg 포대당 1600원을,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포대당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의 많은 관심 바란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하고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함께 나누는 장애인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 ‘성황’

군산시가 지난 7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군산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내 학습 참여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이용자·종사자, 평생교육 관계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성과 영상 시청 △발달장애인 그림그리기 대회 우수작 시상 △기쁜별 우수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특히,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 시간에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9개소가 참여해 댄스·난타·우쿨렐레·태권도·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뽐냈다.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장애인 학습자들이 한 해 동안 쌓아온 노력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배움의 벽을 낮추고, 누구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 내장산 단풍 ‘다음 주 절정’

## 우리나라 자생 단풍 11종 서식…7일 기준 절반 가량 물들어

가을 단풍의 으뜸 명소로 꼽히는 정읍 내장산이 다음 주중 가장 화려한 붉은빛을 뽐낼 전망이다. 정읍시는 지난 7일 기준으로 절반 가량 물든 내장산 단풍이 다음 주중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장산은 가을마다 그윽한 붉은빛으로 물드는 산으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어우러져 매년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을 불러모은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단풍나무는 잎의 갈래 수나 모양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신나무 잎이 3갈래로 나뉘는 반면, 고로쇠나무는 5~7갈래, 당단풍은 9~10갈래로 갈라지는 등 저마다의 특징이 뚜렷하다.

내장산 단풍이 유독 특별한 이유는 이곳이 우리나라 자생 단풍 11종의 서식지이기 때문이다. 당단풍, 좁은단풍,



털참단풍, 복자기를 비롯해 고로쇠, 왕고로쇠, 신나무 등 다채로운 단풍나무가 어우러져 독특한 풍경을 자아낸다.

이곳의 단풍은 잎이 아가 손처럼 작고 고풍하며 진한 붉은빛을 띠어 ‘애기단풍’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이 섬세한 모양이 방문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 포인트다.

내장산 단풍 감상의 백미는 단연 일주문에서 내장사로 이어지는 ‘단풍터널’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붉게 타오르는 단풍잎과 천년고찰의 고즈넉한 풍경이 조화를 이뤄 깊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아기 손 같은 ‘애기단풍’이 붉게 타오르는 지금, 내장산은 1년 중 가장 눈부신 옷을 입었다”며 “단풍터널의 장관과 우화정의 고즈넉한 속에서 바쁜 일상을 잠시 잊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가을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보시길 권한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24시간 악취 감시한다

## 악취 상황실 11~4월

탄력적 근무체계 유지

익산시가 현장 중심의 악취 민원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하절기 ‘24시간 악취 상황실’을 운영해 총 1,576건의 악취 민원을 처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악취상황실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전문인력 4명이 투입돼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24시간 악취를 감시했다.

이 기간 야간 51건을 포함해 총 115건의 시료포집을 실시했으며,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7개 사업장에는 조업정지와 개선명령 등으로 시설 개조와 악취 저감을 유도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축산악취 1,206건(77%) △산단 악취 252건(16%) △기타 118건(7%)으로 집계됐다. 상황실 근무자들은 민원이 접수되면 악취 역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발원지를 신속히 파악하고, 즉시 현장 출동을 조치했다.



특히 축산악취에 대해서는 축사나 가축 분뇨 재활용시설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장을 선정하고, 감시반 2명이 상시 순찰을 실시해 악취 발생 시 즉시 저감 조치를 시행했다.

산업단지 지역은 야간 조업장 점검과 악취측정차량·모니터링 시스템을 병행해 지역별 맞춤형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악취 저감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과 선제적 대응 기반 강화에

도 힘썼다. 공동주택 입주민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악취간담회’를 추진하고, 축산농가와 환경기술인 교육을 통해 악취 행정의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과 함께 악취저감 상설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를 통해 정책 자문과 현장 대응 등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악취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립요양원 ‘전북 첫 가족휴게실 마련’

## 다목적실 증축 마무리 가족과 숙식 가능해

정읍시가 14억원을 투입한 정읍시립 요양원 다목적실 증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6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증축으로 전북 최초로 가족과 숙식이 가능한 가족휴게실이 마련돼 주목받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입소어르신 및 입소자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공자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다목적실 증축공사는 특별교부세 2억원 등 총 14억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248㎡ 규모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1층과 2층으로 분리됐던 생활실을 2층으로 통합, 어르신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전북 최초로 입소자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족휴게실 조성을 마무리했다.

정읍시립요양원은 앞으로 입소자 가족이 원하는 날에 어르신과 가족휴게실

에서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입소환경은 물론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정서안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학수 시장은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더 따뜻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측량 완료

## 석탄동2·와리3 등 4개 지구 총 1,610필지

익산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석탄동2·와리3·망성화산·가좌 등 4개 지구 총 1,610필지(62만 4,177㎡)의 측량을 완료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사업지구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합합 지역으로,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주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주민설명회와 공람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으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4개 지구를 사업대상으로 지정했다.

시는 일일적 측량을 완료함에 따라 △경계조정 협의 △사적확정 예정토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경계결정 통

지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2026년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가 명확해지면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활용가치와 거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해누리노인복지관 신규 개관

### 통합돌봄 체계 본격화

군산시는 군산오룡고령자복지아파트(LH) 내에 조성된 해누리노인복지관의 개관식을 지난 7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관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송영환 LH전북지역본부장, 사회복지 관계자, 지역 어르신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복지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대야노인복지관의 분관인 해누리노인복지관은 연면적 1,196㎡ 규모로 조성돼 내부에는 주방, 다목적 강당, 건강증진실, 프로그램실,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갖추었으며,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산시는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어르신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인프라와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건강·여가·평생교육을 아우르는 생활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해누리노인복지관 개관은 어르신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6개월간 5천여건 ‘성과’ 정읍시, 계절근로자 환송식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마무리

올해 시범 운영돼 1817개 농가에 5068건의 인력을 중개하며 농가 만족도를 높인 ‘정읍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정읍시는 지난 6일 약 6개월간의 활동을 마친 필리핀 근로자 38명을 위한 환송식을 열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에서 열린 환송식에는 이학수 정읍시장, 샘골농협 허수중 조합장, 농협중앙회정읍시지부 김순기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들은 농가의 일손을 도왔던 계절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읍에 머문 기간을 추억할 수 있는 포토북 등 기념품을 전달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이학수 시장은 “한 해 동안 무더운 날씨와 낮은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농작업에 임해준 근로자들 덕분에 농촌에 큰 힘이 됐다”며 “계절근로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정읍에서의 소중한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유관기관 협력 체납차량 ‘강력 단속’

익산시가 자동차 및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6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과 함께 체납차량 과태료 징수 및 변호관 영치를 실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총 20명의 인력과 6대의 단속 차량이 투입됐다. 각 기관의 전문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전방위적 단속을 펼쳤다.

시는 체납차량 자동 인식 시스템과

후대용 단말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체납액을 징수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시 변호관을 영치했다.

시는 지속적인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변호관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공정한 세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사례관리자 개입 역량 강화 방안 모색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지난 7일 군산시 드림스타트 4층 회의실에서 ‘2025년 4차 외부 슈퍼비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의 전문성 향상과 효과적인 사례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드림스타트 전담공무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외부 슈퍼바이저가 참석했다.

특히 외부슈퍼바이저로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영진 팀장이 참여, 중독 관련 사례 접근 방식과 알고리즘·휴먼 등 아동·가정 내 중독 문제의 개입 전략에 대한 자문과 논의를 진행했다.

강영진 팀장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개입 전략과 조언을 제시해 실무

자들의 직무 효율성과 정서적 안정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이번 슈퍼비전에서는 사례관리자의 개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제 사례 공유와 토론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복합적 문제를 가진 아동·가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산시 아동정책과 이영란 과장은 “슈퍼비전은 단순한 자문을 넘어 현장에서 마주하는 고난도 사례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라며,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례관리사의 개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기아동 가정에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인구 10만 시대’ 완주군, 지방자치 우수상

### 국회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서 인구우수정책 선정…역량 호평

완주군이 인구 10만 시대를 성공적으로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7일 국회 사랑채 일원에서 개최된 ‘2025년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된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정책을 평가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전국 30여 지방자치단체가 우수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완주군은 지속 가능한 지방발전 모델로서의 인구정책 역량을 높이 인정받았다.

군은 △정주여건 개선 △기업유치 확대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서비스 확충 △안주형 인구정책 △귀농귀촌 활성화 등 5대 주요 정책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통합적 인구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지난 5월 주민등록인구 10만 명을 돌파하고 10월 말 기준 10만 490명을 기록했다.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안주형 인구정

책 통합 전략’은 단순히 현금 지원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정주, 일자리, 문화·관광, 돌봄 등 4대 핵심 생활 기반을 통합적으로 설계해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 인구의 완주 정착을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인구 10만 달성은 새로운 시작일 뿐,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15만 인구 달성과 대한민국 1등 경제도시 달성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시동

### 국비 9억4800만원 확보 사업 추진 17개 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남원시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국비 9억 48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17일까지 17개 지구 주민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작성된 종이지적의 부정확한 경계를 바로 잡는 국가사업으로, 실제 지형과 지적도 불일치를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전국 3700만 필지 중 약 14.8%가 불일치 상태이며, 남원시도 전체 32만 필지 중 18%에 해당하는 5만7000여 필지가 대상이다.

이 사업은 첨단 위성측량(GNSS)을 활용해 정확한 지적정보를 구축한다.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돼 소유자 부담이 없으며, 면적 증감이 생길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 조정금을 지급



남원시는 2026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10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구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사진=남원시>

하거나 징수한다.

남원시는 2012년 농원지구를 시작으로 39개 지구 3만4493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해 전국 2위의 실적을 거뒀다. 특히 산내면 신흥마을은 실상사 소유지 위에 형성돼 수십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나,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며 74년 만에 민원을 해소한 사례로 꼽힌다.

이번 예산 확보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 시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이해와 참여를 높여 시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나선다.

주민설명회는 주변면 용담마을을 시작으로 열린다. 시는 사업 목적과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소통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국회서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상향 건의

### 최영일군수 타지단체와 공동 건의 국비 부담률 40→80% 상향 요청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 비율 상향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이날 최 군수는 충남 청양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타 지자체 군수 및 부군수들과 함께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현행 국비 40%에서 80% 수준으로의 상향 조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으로, 전국 69개 군 가운데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기본소득은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되는 방식으로, 순창군 역시 선정 대상에 포함되어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최영일 군수는 7일 국회를 찾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 비율 상향을 건의했다. <사진=순창군>

따르고 있다. 사업 구조상 국비 40%, 지방비 60%의 분담 비율은 기초지방정부 입장에서선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1%에 불과해,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도 다른 주요 지역 사업을 병행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 같은 문제는 순창군뿐 아니라 함께 선정된 타 지자체들도 공통으로 겪고 있어 시범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군수는 국회 면담 자리에서 “기본소득 정책은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에도, 과도한 지방비 분담 구조는 오히려 지역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7개 군 대표들은 국비 부담률을 80%로 확대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전북 4대 도시 도약’ 현실로…정읍과 ‘비전’

### 지방소멸위기속 ‘역주행 성장’ 3년 연속 인구순유입 정책 ‘성공’

완주군이 정읍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북 4대 도시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6일 군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완주군의 주민등록 인구(내국인)는 10만 490명으로 전월보다 114명 증가하여, 36개월 연속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속적인 순유입을 기록 중이다.

이는 군 단위 지역 중에서도 3년 이상 연속 인구 상승세를 유지한 사례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성장 기반을

다진 의미 있는 성과다.

이미 완주군은 9월 말 기준 외국인 포함 인구가 10만 5,250명으로, 같은 기간 정읍시를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다.

10월 말 기준 내국인 기준으로는 정읍시(10만 740명)가 소폭 많지만, 완주군은 지속적인 인구 순유입과 성장세로 보내 도시권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이는 유희태 군수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기업유치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 맞춤형 인구정책 등을 통해 ‘전북 4대 도시 도약’ 비전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군은 올해 5월 10만 명 인구 달성이 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삼례·봉동·이서 등 도심권 지역은 물론 구이·소양·고산 등 농촌지역까지 균형 있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군은 2035년까지 15만 인구 달성을 목표로 한 ‘위대한 전진, 행복경제도시 완주’ 비전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도시성장 가속화(4대 도시 도약) △경제성장 고도화(전국 군단위 GRDP 1위) △행복성장 지속화(행복지수 1위 도시) △읍면성장 특성화(주민자치 1번지) 등 4대 성장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귀농귀촌인 한자리에 ‘어울림 한마당’

#### 귀농귀촌인 250여명 참여 9개 지회 경기·공연 등 화합

순창군 귀농귀촌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지난 7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순창군귀농귀촌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에 정착한 귀농귀촌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회식, 민속경기, 장기자랑, 시상식 및 석식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귀농귀촌인 250여 명을 비롯해 순창군민, 군 관계자, 주요 귀농귀촌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시 확

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식전에는 밸리댄스와 가수 공연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어진 개회식에서는 조동욱 협의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손종석 군의회 의장, 전국귀농귀촌중앙회장 정용준 회장의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졌다.

행사에서는 순창군 내 9개 지회가 준비한 민속경기와 장기자랑이 큰 호응을 얻었다. 장기자랑에는 총 18개 팀이 참가해 노래, 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조동욱 순창군귀농귀촌협의회장은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 시민과 함께하는 남원농업인 대잔치

#### 남원시농업인단체협의회 개최 장터·체험마당·1,000인 밥상 등

남원시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강성철)는 남원시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격려하고 남원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오늘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사랑의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남원농업인 대잔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농산물 판매장터 및 시민과 함께하는 체험마당,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등 진행 계획이다. 장터에서는 남원 각지에서 생산되는 최고품질의 농산물이 판매되며 지역경제 및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판매금액의 약 30%정도를 남원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할인 예정이다.

또한, 우리농업을 사랑하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우리농산물을 사용한 1,000인의 밥상(비빔밥)을 준비해 고품질 남원농산물을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농업인의 날의 주인공 농업인들과 30주년 기념 떡 케이크를 잘라 나눌 예정이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제30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을 분야별로 4명 선정 농업인대상을 수여하며, 사과품평회 결과 전시·쌀 품종별 식미평가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전폭 지원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시 ‘책값 돌려주기’ 시민 호응 속 조기 마감

남원시는 시민들의 일상 속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해 온 ‘책값 돌려주기 사업’이 시민들의 높은 참여로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올해는 14일자로 마감되고 밝혔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은 이 사업은 시민 독서 활성화와 지역서점 이용 촉진을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에는 현재 시민 1,226명이 참여해 총 2,137권의 도서를 구입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조기 마감하게 됐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해마다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신청 도서 수는 △2023년 1,900권, △2024년 2,058권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활발한 이용이 이어졌다.

또한 남원시 공공도서관은 지난 6~7월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2025년 책값 돌려주기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만족도는 93.5%로 전년(90.4%) 대비 3.1%p 상승해 시민 독서문화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시민의 독서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서점의 경영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기자

### 남원시, 이륜자전거 찾아가는 출장 검사 운영

남원시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025년 하반기 이륜자전거 출장 검사를 운영한다.

이륜자전거 소유자는 2025년 4월 28일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검사항목에서 제동장치·주행장치 등 19개 검사항목으로 2년마다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남원시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1곳만 있어 읍·면지역 주민들이 검사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주민들의 검사 편의를 위해 18일 아영·산내 19일 운봉·인월 20일 이백·송동 21일 대산·금지에서 출장 검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검사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아영면은 구(아영면행정복지센터, 이백면은 치안센터 인근 공터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배기량 50cc이상 260cc이하) 및 대형 이륜자전거(전기 이륜자전거 포함)로, 하반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 차량 135대가 해당한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검사 시에는 이륜자전거 신고 필증,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수수료 3만원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출장검사 기간 내 미수검 시 교통안전공단 남원검사소에 방문해 검사받아야 하며, 검사 지연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편과 위험 요소를 줄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출장 검사를 운영하는 만큼, 이륜자전거 소유자들께서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전북시민대학 완주캠, 비봉면서 원광대 협업 한방건강관리 교육

전북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고 완주군이 운영하는 전북시민대학 완주특화캠퍼스가 지난 7일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한의사가 알려주는 몸과 마음건강 관리(체질별 한방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비봉면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교육은 협업대학인 원광대학교 한의학 전문가가 맡아 개인의 체질에 맞는 한방 건강관리법과 마음건강 관리 요령 등을 실생활 중심으로 강의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은지 교육정책과장은 “비봉면 이장들이 먼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이를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건강하고 활력 있는 마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소방·경찰·보건기관과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

순창군은 지난 6일 보건·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소방·경찰 및 보건기관 등과 함께 생물테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소규모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생물테러는 바이러스, 세균, 독소 등을 고의로 살포해 살상이나 질병을 일으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소량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어 신속한 초동대응이 중요하다.

이번 훈련은 보건·의료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 순창경찰서·소방서, 안전재단과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훈련을 통해 생물테러 발생 시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훈련 내용은 △생물테러 대응체계 이론교육 △개인보호구 착용·탈의 실습 △다중탐지키트 사용 및 검체 이송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윤기곤 보건·의료원장은 “위기 상황에서 보건·의료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대비 역량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완주군이 공무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완주군은 농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고 실무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영농형태양광 교육은 6일 전라남도 영광군 월평마을에서 실시됐다. 해당 시설은 주민 주도형 최초·최대 규모인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로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로 운영되어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영농형 태양광이 내년 농지법 개정

과 함께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은 일선 담당자들이 관련 농지법을 비롯해 영농 현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작물로 주목받는 망고, 바나나 등 아열대 농장들도 방문해 재배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영농형 태양광은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농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동력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군산 나운1동지사협, 고3 수험생 합격응원 선물 전달

군산시 나운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길란, 이삼석)는 관내 저소득가정 자녀 중 202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 3 수험생 합격을 응원하는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선물꾸러미는 나운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승수)에서 후원한지정기탁금(180만 원)으로 마련했다. 꾸러미에는 수험생 합격기원 및 취업성공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합격엽, 영양탕, 담요 등 선물꾸러미 24세트(180만 원 상당)를 알차게 마련하여 취약계층 가정 고 3 수험생 및 취업준비생 24명에게 전달했다.

꾸러미를 전달받은 학생은 "이렇게 정성들여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삼석 위원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모두를 응원한다"라며 "남은 기간을 차분하게 준비해서 시험 당일에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 익산 황등원광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50만원 기부

익산시 황등면에 지난 7일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모아진 따뜻한 나눔이 전달됐다.

이날 황등원광어린이집(원장 정영미)은 황등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50만 원을 기탁했다. 기부금은 지난달 31일 어린이집에서 열린 '황등시민을 위한 바자회'를 통해 마련됐다.

바자회 현장에는 저렴한 가격의 판매 부스와 다양한 체험 부스, 먹거리 코너 등이 운영됐다. 특히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130여 명이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정영미 원장은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한 뜻깊은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송호 기자

## 전국 장애인체전서 진안군 선수들 활약 빛나

### 전민재 금3·김정순 금1 최은지 동 3개 등 획득

지난 달 31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45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진안군 전민재 선수가 금메달 3개, 김정순 선수가 금메달 1개, 최은지 선수가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전민재 선수는 지난해 대회 3관왕에 이어 올해도 여자 육상



전민재 선수

100m, 200m, 400m에서 모두 금메달을 휩쓸며 2년 연속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그는 장애인 육상 국가대표다운 기량으로 다시 한 번 전국 최정상급 실력을 입증했다.

또한 김정순 선수는 파크골프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김정순 선수

걸었으며, 최은지 선수는 수영 여자부 접영 50m, 평영 100m, 배영 100m에서 각각 동메달을 차지해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무더운 여름 동안 땀 흘려 훈련한 결과가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며 "전북특별



최은지 선수

자치도와 진안군의 위상을 높여준 선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격려했다.

이어 "새로 준공된 반다비 체육센터가 선수들의 훈련과 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안=전길빈 기자



### 김제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 취약계층에 김장김치 나눔

김제시 성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선열)가 지난 7일 '2025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열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할 김치를 직접 담가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에 걸쳐 진행된 김장나눔 행사는 주민자치위원 20여 명이 참여해 여름내 직접 재배한 배추 500포기를 버무려 차곡차곡 김치통을 채웠다. 이날 담근 김치는 독거노인, 경로당, 저소득 가정 등 관내 100여 가구에 전달됐다.

최선열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히 김장김치를 담그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온정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장수군 번암면, '찾아가는 행복 만리길' 행사 개최

장수군 번암면은 지난 6일 봉화체육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찾아가는 행복 만리길'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복지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건강·문화·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형 복지프로그램으로, 번암면 주민 9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혈압·혈당 측정 △개별 문진을 통한 영양수액 처방 △귀관리 건강관리 △편백팔찌 만들기 △문화공연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번암면을 비롯해 번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장수군가족센터, 장수군자원봉사센터, 장수군보건지소, 남원의료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13개 민·관 기관이 협력해 함께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번암면은 행사성 지원을 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복지서비스 발굴 및 사후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의 발전 바라는 마음"

임실군은 지난 5일, 지역기업 (주)한덴 김병원 대표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23년에 이어 두 번째 기부로, 고향에 대한 애정과 지역 상생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

(주)한덴은 임실읍에 위치한 낙농 품 및 동·식물성 유지 도매 전문 기업으로, 치즈 제조 원료 공급을 통해 지역 낙농산업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임실N치즈 축제에서 얻은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며, 지역 축제의 의미를 지역 환원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사례를 보여줬다.

김병원 대표는 "임실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축제 판매 수익 등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지역에 지속적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심 민 임실군수는 "고향 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부자의 뜻을 반영해 지역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은 지난 5일 지역기업 (주)한덴 김병원 대표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 이종원 동경영어영농조합 대표, 부안에 200만원 기탁

부안군은 지난 7일 이종원 동경영어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고향사랑 기부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종원 대표는 지난 2024년에도 고향사랑기부금을 한 데 이어 올해 다시 한 번 기부를 실천하며 지역 농업인의 모범적인 나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동경영어영농조합법인은 부안을 기반으로 서리데, 백태, 팔 등 잡곡류를 생산·유통하는 농업 법

인으로 쿠팡·우체국쇼핑·지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며 지역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종원 동경영어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농업이야말로 지역을 지탱하는 근간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력한 성과를 다시 고향에 환원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부안=신성수 기자



### 서성한 신원케미칼 대표, 임실에 100만원 기탁

전주시 소재 화학제품 유통기업 신원케미칼의 서성한 대표가 지난 5일 임실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 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신원케미칼은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남원 출신인 서 대표는 전북 각 시·군에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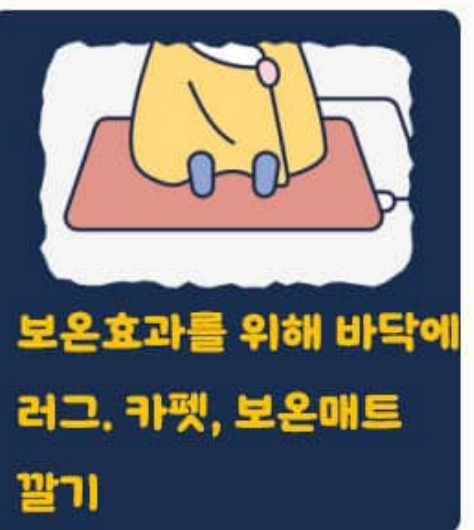
이번 기탁도 그 일환으로 임실

군을 직접 방문해 진행됐다. 임실군은 열한 번째 기부지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려는 대표의 의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 대표는 "지역을 직접 찾아 다니며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며 "각 지역이 지닌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가을철 에너지 절약 방법



〈一事一言〉



전북의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

김관순  
논설위원

전북에 사는 청년 대부분은 결혼과 출산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결혼은 해야 한다는 응답이 72%, 자녀는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조건’이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와 주거, 양육의 현실적 장벽이 너무 높아 그 마음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전북연구원이 도내 20~44세 청년 1,0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및 정책 수요 조사’ 결과는 이 같은 청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유는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38.5%)가 가장 많았지만, 그 뒤를 이은 응답은 ‘주거비용 부담’(27.9%)과 ‘만족할 만한 일자리 부족’(26.0%)이었다. 이는 결혼 상대를 만나도 결심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청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출산 인식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자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년이 70.1%에 달했지만, 미혼 청년 중 38%는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임신·출산·양육의 어려움(21.8%), 양육·교육비 부담(16.1%),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12.7%)이 꼽혔다. 결국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세대’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세대’로 만들어버린 것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그리고 돌봄의 공백이다.

전북 청년들은 저출생의 원

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22.1%)과 ‘높은 주거비 부담’(14.5%)을 지적하며, 그 대책으로 ‘안정적 일자리 확충’(20.4%), ‘내 집 마련 지원’(18.7%), ‘일·양육 병행 지원’(15.7%)을 요구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지원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보장해 달라는 절박한 외침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펼쳐온 출산장려금이나 결혼지원금 중심의 단편적 정책으로는 저출생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년의 결혼 접근성 제고 및 관계 형성 지원 ▲안정적 일자리와 주거 기반 마련 ▲양육 및 돌봄 지원 확대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생식 건강 및 임신·출산 지원체계 강화 ▲성평등한 양육 환경 조성과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출산율’이라는 숫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삶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제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정책이 아니라 청년정책, 노동정책, 주거정책, 그리고 지역정책의 통합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전북의 경우, 수도권과의 격차 속에서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머물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청년주택 확충, 보육 인프라 확장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종합대책

이 절실하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청년 결혼·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열쇠다. 전북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제조·농식품 중심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고임금·고숙련 일자리가 부족하다.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명확하다면, 그에 맞는 산업정책으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과 원격근무 기반 확충, 청년창업 지원 확대 등으로 ‘지역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주거 문제 또한 결혼과 출산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전북은 수도권에 비해 집값이 낮다고 하지만, 청년들의 체감은 다르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전세보증금 마련조차 버거운 청년에게 ‘내 집 마련’은 먼 이야기다. 전북도는 청년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지역 맞춤형 전·월세 지원,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제도상 보장되어 있어도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겐 여전히 먼 이야기다.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공공 보육시설 확충, 유연근무제 확대,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이 병행될 때 비로소 청년 세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의무’나 ‘국가 요구’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자 삶의 질의 문제로 인식된다. 따라서 “왜 결혼하지 않는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를 묻기보다 “어떤 조건이라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지방정부는 출산율 수치를 높이려는 단기적 성과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년이 결혼을 꿈꾸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진짜 저출생 해법이다. 결혼은 개인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 결정의 배경에는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환경이 있다.

청년이 “결혼하고 싶지만 못한다”고 말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지역의 미래 또한 함께 늘어갈 수밖에 없다. 청년층은 결혼·출산을 개인의 선택과 삶의 질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왜 하지 않는가’가 아닌 ‘어떤 조건이면 할 수 있는가’를 드러냈다. 따라서 정책 설계 초기부터 결혼과 출산 및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의 청년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과제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물며, 사랑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출생 극복의 출발점이다.

전북 고용정책의 새 이정표, 새만금 고용특구

새만금이 미래산업 중심의 ‘통합형 고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고용특구로 지정한 지 1년여 만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고용 모델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전북특별법 제64조에 근거해 새만금이 고용특구로 지정된 이후, 올해 3월 출범한 새만금고용특구일자리지원단은 7개월 만에 취업 연계 183명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당초 목표를 22% 초과 달성한 이 수치는 단순한 고용 통계를 넘어, 새만금의 산업 전환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새만금 고용특구는 이차전지·모빌리티·신재생에너지·첨단소재 등 미래산업이 집적된 1~9공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과거 자동차·조선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이던 지역 산업구조가 급속히 첨단 산업으로 재편되면서,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산업구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특구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인재를 산업현장에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새만금고용특구일자리지원단은 구직자 발굴부터 취업 연계, 고용유지와 복리후생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차전지 분야에 서만 105명의 취업 성과를 거둔 것은 새만금이 전북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방증한다. 지원단은 찾아가는 상담소·현장 면접 매칭데이를 운영해 기업과 구직자를 직접 연결,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확장하고 있다.

고용 안정성 강화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지원단은 10월 말 기준으로 106명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고, 10개 기업에 복리후생을 지원해 인력 이탈을 최소화했다. 기업 간담회, 고용정보방 구축, 상시 매칭 서비스 등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군산시·고용센터·새만금개발청 등과의 협력체계도 활발히 가동되며 지역 고용 네트워크가 탄탄히 구축되고 있다.

이제 과제는 성과의 ‘지속성’이다. 새만금 고용특구가 단기적 채용성공에 머물지 않으려면 산업정책과 정주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근로자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순환 고용 생태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전북도는 내년도 인력수급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업 맞춤형 고용정책을 강화하고 교육·주거·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

새만금은 이제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미래형 일자리 실험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산업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시대일수록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모델이 중요하다. 새만금 고용특구가 기업 투자와 인재 육성, 지역 정주가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고용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이는 전북 뿐 아니라 전국 지방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타가 될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이 산업전환 시대의 선도적 고용특구로 자리매김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전북의 미래를 여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오늘의시

가을 저녁의 시 / 김 춘 수

누가 죽어 가나 보다  
차마 다 감을 수 없는 눈  
반만 뜬 채  
이 저녁  
누가 죽어 가는가 보다.  
살을 저미는 이 세상 외롭 속에서  
물 같이 흘러간 그 나날 속에서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터지게 부르면서 살아온  
그 누가 죽어 가는가 보다.  
풀과 나무 그리고 산과 언덕  
온누리 위에 스며 버린  
가을의 저 슬픈 눈을 보아라.  
정녕코 오늘 저녁은  
비길 수 없이 정한 목숨이 하나  
어디로 물 같이 흘러가 버리는가 보다.

시인 약력 : 1922년 경남 통영 출생. 경성제일고보를 졸업했다. 마산고에 재직하던 1946년에 시 ‘애가’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경북대와 영남대 국어국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1981년 민정당에서 전국구 의원을 하다 정계에서 은퇴한 뒤 시인과 평론가로서 활동했다. 1948년 첫 시집인 ‘구름과 장미’ 출간을 시작으로 ‘산악(山嶽)’, ‘꽃을 위한 서시’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등을 발표했다. 1958년에 한국시인협회상, 1959년에 아시아 자유문학상을 수상했다.

| 특별기고 |

후지산의 타타미 바위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전환점이 있다. 누가 필자에게 인생 전환점을 묻는다면, 필자는 주저 없이 국비유학생에 선발되어 미국에서 석·박사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기회와 더불어, 전북대 교수로 근무하던 2002년 일본 과학재단 초청 교수에 선발되어 동경대 의대에서 연구할 기회가 있었던 것을 꼽을 것이다.

2000초 IMF 외환위기로 신음하고 있던 우리나라와 다르게 당시 일본은 찬란한 황금기를 구사하고 있었다. 일본이 생산해 낸 자동차, 전자,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같은 첨단 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면서 일본 사람의 자부심은 가히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그 무렵 일본의 1인당 GDP 규모는 세계 최고이었었고, 국가 GDP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었다. 산업기술도 일본은 미국을 추월해서 일본 기업은 미국 기업을 압도하고 있었다. 과학기술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은 수많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이미 추월해 버렸었다. 그래서 그 무렵 수많은 미래학자는 이구동성으로 21세기는 일본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당시 동경대 의대에 구비된 최첨단 연구 장비와 설비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도 구경하기 힘들 정도였다. 우람한 나무가 고풍스러운 건물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 동경대 캠퍼스에 압도되었던 필자는 실험실을 구경하면서 각종 최첨단 연구 장비가 완벽하게 구비된 연구 환경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동경대의대에서 필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유전학 대가인 이노우에 교수와 서로 통하는 면이 많아 매우 가깝게 지냈었다. 우리 두 사람은 우에노 술집에서 여러 이야기로 수많은 밤을 새워왔게 새어가곤 했었다.

당시 일본의 국가경쟁력과 대학의 연구 환경에 압도된 필자는 이노우에 교수에게 일본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감탄조로 말한 적이 있었다. 필자의 말에 이노우에 교수는 흥 교수 자네는 일본을 잘 몰라서 일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일본은 희망이 없는 나라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노우에 교수의 말에 필자는 처음에 당혹스러우면서도 의아하였지만,

깊은 대화를 이어갈수록 이노우에 교수의 깊은 고견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1868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은 짧은 기간에 전근대 국가에서 세계 주요 열강으로 도약하였다. 메이지 유신의 주도 세력인 사쓰마 번과 조슈번 사무라이들은 사심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한 자기희생과 더불어 서구의 과학기술, 사회제도, 법률 체계 등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분석하여, 당시 일본에 맞는 최선의 국가 시스템을 탄생시켰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외부가 아닌 내부의 자각에 의해 추진적 국가에서 세계열강으로 갑자기 국가가 도약한 경우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유일하여, 메이지 유신은 세계 수많은 역사학자를 포함한 인문 사회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사쓰마번과 조슈번 사무라이들이 닦아 놓은 메이지 유신 덕분에 일본은 순식간에 과학기술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세계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21세기 컴퓨터가 혁명적으로 발전하면서 세계는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새로운 혁신이 시작되었다.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을 국가 발전의 기회로 삼은 국가도 있었지만, 과거의 영광에만 도취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남긴 환경의 탓에 강제 변화를 거부하다가 21세기에 들어 국가 전체가 추락해 버렸다.

그래도 일본은 한때나마 세계 최고의 위치에 도달한 다음 추락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정상은커녕 겨우 선진국 문턱을 살짝 구경하다가 벌써 추락하기 시작하고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 추락 속도는 일본보다 훨씬 빨라 현재 우리는 국가 소멸까지 걱정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대한민국 타지역에 대해 사둔 남 말할 처지가 못 된다. 중앙정부에서 전북의 발전에 쓰라고 배정한 연구개발비를 측근 중심 개관으로만 집행하여 전북 발전에 재를 뿌리는 것도 모자라, 대마초 사업이라는 황당무계한 사업에 조 단위의 거금을 투자하고, 음주운전 전과 3회를 포함해 전과 5범인 사람을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요 기관장에 과감히 발령 내버리는 김관영 같은 사람이 도지사로 있는 현실에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싶다.

오늘 세계인들은 후지산의 이끼 낀 타타미 바위를 바로 옆에서 바라보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전북인들에 끌끌 혀를 차고 있을 것이다.

/전북대학교 미생물학과  
홍성출 교수

|                                                     |                    |                                             |                    |
|-----------------------------------------------------|--------------------|---------------------------------------------|--------------------|
|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11월 10일               |                    |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간우)549990 |                    |
| www.jeonbuktimes.co.kr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                    |
| 발행, 편집인 송민순                                         |                    | 편집국장 장정철                                    | 인쇄인 김은주            |
| 대표전화 282-9601                                       |                    | 업무국 팩스 282-9604                             | 편집국 팩스 283-8800    |
| 전주시시 010-9845-4113                                  | 군산지국 010-8641-7842 | 무주지국 010-8411-0835                          | 부안지국 010-7247-3947 |
| 종양지시 010-9878-4271                                  | 남원지국 010-2285-3987 | 임실지국 010-8642-6502                          | 고창지국 010-2258-3734 |
| 인후지시 010-8640-8855                                  | 익산지국 010-9560-3075 | 진안지국 010-2433-1721                          | 완주지국 010-3672-0308 |
| 팔복지시 010-3015-4791                                  | 김제지국 010-4572-6112 | 장수지국 010-8826-6049                          |                    |
| 송천지시-010-5242-3694                                  | 정읍지국 010-2800-2934 | 순창지국 010-5312-7293                          |                    |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김제시, 인구 순유입 전환 성공!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 마련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민선8기, 정주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키고 합계출산율 상승, 생활인구 확장 등 인구정책 전반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인구 순유입 증가는 김제시가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 투자, 시민이 체감하는 출산·육아 정책, 그리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혁신적 접근까지 김제시가 향후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김제의 인구정책을 살펴보자. <편집자주>



## 민선 8기, 정주인구 반등·합계출산율 상승 생활인구 기반 확산 등 가시적 성과

1.14명을 기록해 전국 평균(0.75명) 대비 1.5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산후조리비(최대 100만원), 신생아 축하용품(45만원 상당), 다자녀가정 양육비(월 10만원, 최대 60개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 # 생활인구 50만 시대 준비...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 본격 추진

시는 정주인구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광객, 단기 체류자, 외국인 등 실제 지역에 머무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적극 도입하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없이도 일정 시간 이상 지역에 머무르며 소비·활동하는 인구로, 최근에는 정주인구 이상의 도시 활력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떠오르고 있다.

김제시는 이러한 생활인구의 중요성을 반영해 2024년 10월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김제시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를 도입해 2025년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김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디지털 시민증'을 발급받고 김제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디지털 시민증을 소지한 생활인구는 김제시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지역 가맹점 할인, 관광·체험시설 우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김제시를 찾는 비정주 인구의 체류 만족도와 지역 재방문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김제시는 시민제도 참여 혜택 제공을 위한 지역 내 가맹점 30개소를 공개 모집 중이며, 음식·숙박·체험 등 다양한 업종의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해 생활인구 유입 플랫폼을 민간 협력형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시는 현재 약 33만 명 수준의 생활인구를 중장기적으로 5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시민제도 기반의 플랫폼 운영, 가맹점 네트워크 확충, 시민참여 프로그램 연계 등 종합적인 유입 전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락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 # 지방소멸대응기금 292억 확보... 지역 활력 회복의 기폭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92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총 29개의 인구활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기금은 정주여건 개선, 청년·가족정책, 생활SOC확충, 자연친화놀이체험 공간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대표 사례인 '김제시 폐양조장 로컬재생 프로젝트'는 유휴 공간을 청년창업과 문화거점으로 탈바꿈시킨 사업으로,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또한, 시는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해 인구 활력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정주인구 반등과 합계출산율 상승은 김제형 인구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데이터 기반 전략, 협업 중심 행정을 통해 활력 넘치는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 통합시 출범 이후(1995년) 처음으로 인구 반등에 성공한 민선 8기

김제시는 통합시(1995년) 출범 이후 매년 평균 1,500명 이상 인구가 감소해 왔으며, 이는 지방도시 공통의 구조적 인구감소 문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강력한 인구대응 정책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이러한 추세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김제시는 지난 9월 말 기준 81,586명의 인구를 기록하며, 민선 8기 출범 당시인 2022년 6월 말 80,861명 대비 725명 증가하는 의미 있는 반동을 이뤄냈다.

이는 정주인구 순감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된 첫 사례로, 김제시 인구정책의

방향 전환과 실행력이 실제 수치로 입증된 성과다. 이와 같은 전환은 특히 청년층, 외부 전입자의 증가와 더불어 산업단지 기반 정착, 주거 지원, 귀농·귀촌 인프라 확충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 #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으로 전입·정착 유도

시는 인구정책의 핵심을 '생애주기별 지원'에 두고, 전입·결혼·출산·양육까지 촘촘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출산장려금은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결혼축하금(1,000만원), 전입장려금(1인당 20만원), 이사비 지원(세대당 30만원), 대학생 생활안정비(학

기당 30만원) 등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가 주요 정책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 사업, 중·고등학교 대상 청년드림카드(3~5만원)와 김제사랑장학금 및 격려금 확대 등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청년과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 # 3년 연속 출산율 상승... 가족친화 도시 이미지 강화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가운데, 김제시는 3년 연속 합계출산율 1명대를 유지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1년 0.91명었던 합계출산율은 2022년 1.19명, 2023년 1.37명, 2024년

**전북의 오늘, 전북타임스와 함께**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